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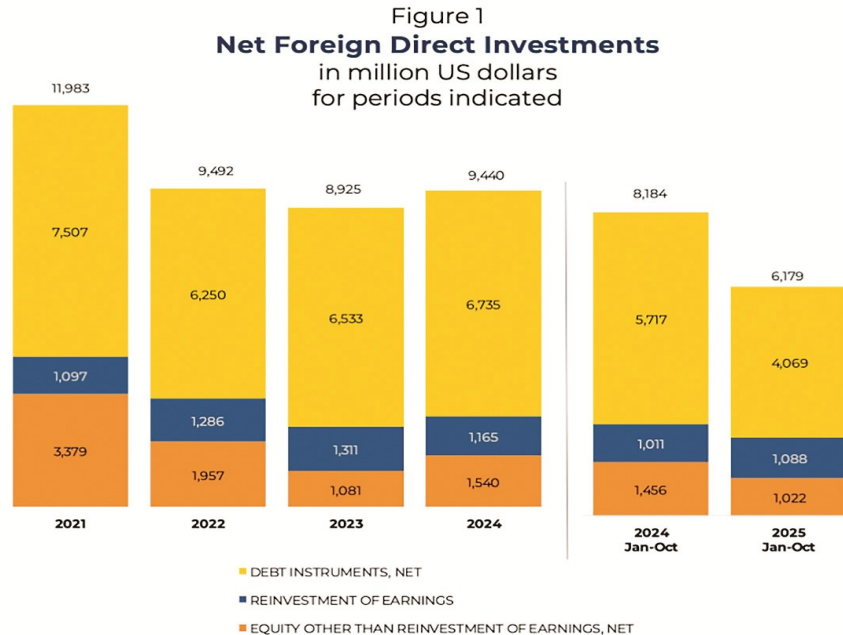
January 2026 Issue | Vol. 04

SPECIAL POINTS OF INTEREST

- 외국인 투자 유입이 40% 감소
— page 1-2
- SEC, eAMEND 포털 적용 범위 확대
— page 2-3
- ‘UAE와의 CEPA, 중소기업 수출 길 더 넓힌다’
— page 3-4
- 필리핀이 동남아시아 성장 선도 전망
— page 4-5
- FTA 활용의 열쇠: 필리핀 경쟁력의 부족 — page 5-7
- 사업 중단, 아시아·태평양 기업들의 주요 위험 요소 — page 8
- 상무부, 의류 제조업체 대상 세제 혜택 시행 — page 9

외국인 투자 유입이 40% 감소

January 14, 2026 | Victor Sollorano, Ruelle Castro, Malaya Business News Team



10월 말 기준 FDI 6억4,200만 달러... 투자자들 확장 연기 속 전년 대비 감소

필리핀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025년 10월에 급감했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에 따르면 10월 순유입액은 6억4,200만 달러로, 2024년 같은 달의 10억7,000만 달러에서 39.8% 감소했다.

10월 FDI 수치는 9월의 5년래 최저치인 3억2,000만 달러보다는 반등했지만, 여전히 최근 수년 중 가장 부진한 수준 중 하나로 평가된다.

한편 9월 실적은 5년 이상 만의 최저치로, 팬데믹 봉쇄가 정점에 달했던 2020년 4월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리잘상업은행(RCB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리카포트는 설명했다.

10월 실적 부진으로 2025년 1~10월 누적 FDI 유입액은 61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 81억8,000만 달러 대비 24.5% 감소한 수치로 투자자들의 신중한 태도를 보여준다.

부채성 투자 위축이 주된 원인

BSP 자료에 따르면 이번 둔화는 주로 부채성 투자(net debt instruments) 감소에 기인했다. 이는 외국 모기업과 필리핀 내 자회사 간의 대출 및 차입 등 사내 금융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10월 부채성 투자 순유입액은 4억3,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0% 이상 줄었다. 누적으로는 2025년 1~10월 부채성 FDI가 전년 대비 28.8% 감소한 40억7,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FDI 감소의 대부분을 설명했다.

리카포트는 이러한 약세가 글로벌 및 국내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외국 기업들이 자금 투입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2025년 초 미국의 관세 인상, 무역 분쟁, 기타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일부 수출 기업들이 관망적 태도를 취하게 됐다” 며, 미국으로의 수출 수요 둔화 우려가 투자 시점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Cont. page 2]

외국인 투자 유입이 40% 감소

[Cont. from page 1]

그는 최근 몇 달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신중한 태도를 더욱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FDI 감소는 일부 투자자들로 하여금 관망적 태도를 취하게 만든 정치적 잡음이 주된 원인이었다” 고 그는 말했다.

주식자본은 비교적 안정적

2025년 들어 10개월 동안 주식자본 흐름은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10월 제투자 이익을 제외한 순주식투자는 1억1,7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제투자 이익은 8,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025년 1~10월 누적으로는 순주식자본 유입이 약 30% 감소한 10억2,000만 달러에 그쳤다.

반면 제투자 이익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10억9,000만 달러로 나타나, 신규 자본 유입은 둔화됐지만 이미 필리핀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이익을 계속 유보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FDI 회복 요인

리카포트는 지배구조 개혁이 본격화될 경우 올해 FDI 유입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반부패 조치와 지배구조 개선 관련 개혁이 진지하게 추진된다면 FDI는 회복될 수 있다” 며, 지난해 둔화 이후 정부 지출이 정상화되는 것도—특히 문제로 지적됐던 홍수 방지 사업 지연 이후—투자자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추가적인 통화 완화 가능성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글로벌 차입 비용이 낮아질 경우 장기 투자의 매력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HSBC의 아세안 담당 이코노미스트 아리스 다카나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부의 제도 개혁 이행 능력에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은 현재 관망 국면에 있다” 며 “필리핀은 규칙 기반 경제이자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고 평가했다.

다만 다카나이는 수출 지향형 FDI는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는 미국의 통상 전략 전환 속에서 동남아시아가 누리는 관세상 이점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정치적 역풍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관세 측면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며, ‘차이나 플러스 원(China-plus-one)’ 전략 하에서 2025년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의 주요 수입 공급원으로 중국을 앞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국과 산업별 동향

10월 기준으로 일본이 최대 FDI 유입국이었으며, 금융 및 보험업이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한 산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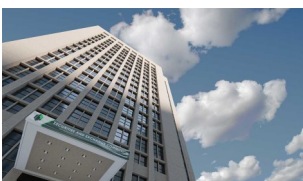
2025년 1~10월 누적으로는 일본, 미국, 싱가포르가 주요 투자국이었고, 제조업과 도·소매업, 부동산 부문에 투자가 집중됐다.

리카포트는 이러한 흐름이 투자자들이 필리핀을 떠난 것이 아니라, 글로벌 환경 악화와 국내 불확실성 속에서 관망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foreign-investment-inflows-plunge-40/](https://malaya.com.ph/business/foreign-investment-inflows-plunge-40/)

SEC, eAMEND 포털 적용 범위 확대

January 14, 2026 | Alexandria Grace C. Magno | BusinessWorld



SEC.GOV.PH

증권거래위원회(SEC)는 eAMEND 포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기업 정관 변경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서류의 원본(하드카피) 지연 제출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메모랜덤을 발표했다.

2026년 제3호 메모랜덤 서클러(Memorandum Circular No. 3, Series of 2026)에 따르면, 새 지침은 기존에 간이 절차(simple processing)로 분류되던 신청을 복합 거래(complex transactions)로 재분류하고, 정규 절차(regular processing)에 해당하던 신청은 고난도 기술 거래(highly technical transactions)로 지정했다. [Cont. page 3]

SEC, eAMEND 포털 적용 범위 확대

[Cont. from page 2]

이번 개정은 절차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2018년 기업환경 개선 및 효율적 정부 서비스 제공법(Ease of Doing Business and Efficient Government Service Delivery Act)과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 규정에 따라 간이 절차(simple processing)의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여기에는 서문 조항, 법인 또는 상호명, 주된 목적 및 부수 목적, 본점 주소, 존속 기간, 이사 또는 수탁자 수의 변경이 포함된다. 또한 자본금 변경이나 주식 재분류와 연계되지 않는 특정 주식 관련 사항과 회계연도, 감사 규정, 회원 권리, 회의 절차, 정족수 요건 등 일부 정관(by-laws) 조항의 변경도 대상에 포함된다.

SEC는 간이 절차를 통해 최대 4개까지의 정관 조항 변경을 허용하며, 그 외에도 위원회가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변경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메모랜덤은 “이번 확대 적용은 기존의 제한적인 간이 절차 범위를 대체하는 것으로,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승인된 모든 신청 건에 대해서는 eAMEND 포털을 통해 디지털 인증서가 발급되며, 실물 인증서는 사후 평가 이후에만 교부된다”고 밝혔다.

디지털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본(하드카피)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수수료 몰수와 함께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정규 절차(regular processing)**는 이번 개정으로 **고난도 기술 거래(highly technical transactions)**로 재분류됐다. 이에 해당하는 신청에는 신규 정관 제정, 5개 이상 조항에 대한 정관 개정, 법인 존속 기간 단축을 통한 해산, 조합 계약서 개정, 조합 해산, 모든 유형의 법인 전환이 포함된다. 조합 관련 신청은 복합 거래로 분류되지만, 절차상으로는 여전히 정규 절차를 따른다.

SEC는 또한 심사 이후 내려진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규 절차에 따른 신청은 **신청 포기(abandonment)**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년 7월 출범한 eAMEND 포털은 기업 정관 변경 신청의 접수, 처리, 승인 및 수수료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 지침은 거래 분류를 명확히 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수수료·인증서·벌칙에 관한 새로운 절차를 공식화함으로써 기업 관련 신청의 일관성과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corporate/2026/01/14/723992/sec-broadens-eamend-portal-coverage/>

‘UAE와의 CEPA, 중소기업 수출 길 더 넓힌다’

January 15, 2026 | Andrea E. San Juan| BusinessMirror

필리핀 기업과 수출업계에 따르면, 필리핀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무역협정 체결로 필리핀 무역이 장기 성장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번 협정으로 UAE는 더 넓은 시장으로 향하는 ‘새로운 통로’를 열어줄 전망이다.

필리핀상공회의소(PCCI) 회장 페르디난드 페러(Ferdinand Ferrer)는 성명에서 “UAE는 필리핀 수출의 주요 목적지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중동·아프리카·유럽을 연결하는 글로벌 관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UAE의 물류 및 재수출(re-export)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통로 개방으로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는 필리핀 무역을 더욱 탄력적으로 만들고, 장기 성장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필리핀수출업자연맹(Philexport) 회장 세르지오 R. 오르티즈-루이스 주니어(Sergio R. Ortiz-Luis Jr.)도 같은 의견을 공유하며, UAE가 단순한 수출 대상국을 넘어 글로벌 무역의 전략적 허브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오르티즈-루이스는 성명에서 “이번 협정은 필리핀 수출업체들이 중동 및 그 외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국내에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 포용적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상공회의소(PCCI)는 이번 협정이 필리핀의 무역 파트너 다변화를 지원해, 일부 ‘전통적’ 수출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PCCI는 UAE를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 허브 중 하나로 평가하며, 필리핀 수출업체, 투자자, 중소기업들이 고소득·연결성이 높은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Cont. page 4]



President Ferdinand R. Marcos Jr., together with UAE President Sheikh Mohamed bin Zayed Al Nahyan, witnessed the signing of the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on the sidelines of the Abu Dhabi Sustainability Week 2026. (Photo courtesy of the Presidential Communications Office)

‘UAE와의 CEPA, 중소기업 수출 길 더 넓힌다’

[Cont. from page 3]

한편, 오르티즈-루이스는 이번 무역협정의 혜택이 기존 수출업체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hilexport 회장은 이번 협정이 **마이크로·소규모·중견기업(MSMEs)**에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사업을 확장하며, 필리핀 지역사회 전반의 포용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협정이 필리핀 수출업체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장벽을 줄이며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전자제품, 식품·농업, 기계, 마나나·파인애플과 같은 열대과일 등 주요 산업과 거점 시장, 그리고 관련 가치사슬(value chain)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CEPA는 명확한 규칙, 낮은 관세, 수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국가 수출 성장 전략과 부합한다” 고 그는 말했다.

Philexport 회장은 UAE와 CEPA 체결이 필리핀 수출업체와 국가 전체에 큰 활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PCCI는 이번 협정의 강력한 이행을 위해 명확한 규칙과 무역 원활화, 그리고 “적극적인 기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상공회의소는 CEPA를 홍보하고 필리핀 기업들이 이번 성과를 실제 수출 성장, 투자 유입, 일자리 창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고 밝혔다.

수출업체 측에서는 Philexport가 정부 기관, 업계 파트너, 지역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필리핀-UAE CEPA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수출업체와 국민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Philexport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필리핀의 UAE 수출액은 약 3억9,000만 달러에 달했다.

Image credits: **PCO**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6/01/15/cepa-with-uae-opens-more-export-pathways-for-msmes/>

필리핀이 동남아시아 성장 선도 전망

January 15, 2026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The World Bank headquarters is seen in Washington, DC

Daniel SLIM / AFP

세계은행 보고서

마닐라, 필리핀 —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필리핀은 올해와 내년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빠른 경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은행이 2026년 1월 발표한 글로벌 경제 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5.3%**로 예상되며, 이는 2025년 예상 성장률 **5.1%**에서 소폭 상승한 수치다.

이번 성장률 전망은 지난해 12월 세계은행이 제시한 전망과 동일하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올해 필리핀의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의 5~6% 성장 목표 범위 내로 잡았지만, 지난해에 대한 추정치는 정부의 5.5~6.5% 성장 목표를 밑돌았습니다.

이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필리핀은 올해와 2025년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가 될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필리핀의 202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베트남의 예상 7.2%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지만, 인도네시아(5%), 캄보디아(4.8%), 라오스(4.2%), 말레이시아(4.1%), 태국(2%) 및 미얀마(-1.8%)보다는 더 빠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필리핀 성장률 전망치 또한 베트남의 예상 6.3%보다는 낮지만, 인도네시아(5%), 캄보디아(4.3%), 말레이시아(4.1%), 라오스(4%), 미얀마(3%) 및 태국(1.8%) 등 이웃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Cont. page 5]

필리핀이 동남아시아 성장 선도 전망

[Cont. from page 4]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필리핀 경제는 평균 5% 성장했습니다.

2025년 필리핀의 연간 경제 실적에 대한 데이터는 1월 29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세계은행은 내년 필리핀 경제가 5.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5.5~6.5% 성장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필리핀은 여전히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로 남게 되며, 베트남은 2027년에 6.7%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은행이 전망한 2027년 필리핀의 GDP 성장률은 인도네시아(5.2%), 캄보디아(5.1%), 말레이시아(4%), 라오스(3.9%), 태국(2.5%)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은행은 필리핀을 포함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이 여전히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의 성장을 위협하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무역 제한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의 추가 확대가 있습니다.

그 외 하방 위험 요인으로는 글로벌 금융 여건의 긴축,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일부 국가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불안, 자연재해 등이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필리핀은 지난해 말 강력한 지진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상방 요인으로는 민간 부문의 적응력, 인공지능 투자, 수출 확대 등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6/01/15/2500985/philippines-seen-lead-southeast-asia-growth](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6/01/15/2500985/philippines-seen-lead-southeast-asia-growth)

FTA 활용의 열쇠: 필리핀 경쟁력의 부족

January 14, 2026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필리핀은 미국 관세 체계로 인한 무역 혼란 이후 변화하는 교역 패턴에 대비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업체들이 FTA 파트너로부터 제공되는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2022년 이후, 필리핀은 두 건의 주요 FTA를 체결했습니다. 바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필리핀-한국 무역협정입니다. 이 두 협정으로 필리핀의 활성 FTA 수는 상무부(DTI) FTA 포털 기준으로 11건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수출은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베트남 등 다른 ASEAN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뒤처지고 있습니다.

ASEAN 통계(ASEANstats)에 따르면, 필리핀은 2023년 블록 내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상품 수출을 기록했으며, 금액은 729억 달러였습니다. 이 해는 RCEP이 필리핀에서 발효된 해이기도 합니다.

지역 내 최대 수출국은 2023년 기준 싱가포르로 4,75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어 베트남(3,531억 달러), 미얀마(3,126억 달러), 태국(2,846억 달러), 인도네시아(2,589억 달러) 순이었습니다.

필리핀상공회의소(PCCI) 전임 회장인 에누니나 V. 망지오(Enunina V. Mangio)는 “국가가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측면에서의 활용도는 여전히 낮다”고 밝혔습니다.

PCCI가 최근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많은 수출업체들이 FTA 혜택에 대한 인식 부족,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인증 절차, 생산·물류·규제 준수 관련 국내 비용 부담 등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그녀는 Viber를 통해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특히 중소기업(MSME)들이 한국과 같은 주요 시장을 포함한 우대 시장 접근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Cont. page 6]



FTA 활용의 열쇠: 필리핀 경쟁력의 부족

[Cont. from page 5]

필리핀상공회의소(PCCI)는 상무부(DTI) 알란 B. 겅티(Allen B. Gepty) 차관보를 인용해, 필리핀의 RCEP 활용률이 약 2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겅티 차관보는 “필리핀은 여전히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 적자 문제가 심각하며,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이러한 FTA 혜택을 활용하고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인식 제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PCCI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RCEP를 활용하지 않는 많은 기업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FTA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망지오 회장은 공공-민간 협력 강화, 절차 간소화, 보다 포괄적인 FTA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의 무역협정이 실제 수출 성장과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함”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태평양대학(University of Asia and the Pacific) 부교수이자 전 관세위원인 조지 N. 만자노(George N. Manzano)는 낮은 활용률이 필리핀 수출품의 대부분이 최혜국(MFN) 관세율에 해당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필리핀 수출품 중 상당 부분이 전자제품처럼 MFN 관세율 기준에서 저관세 또는 무관세로 분류되어 있어, FTA가 있어도 올해 한국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의 한국 수출은 2025년 1~10월 기간 동안 12% 감소한 27억3,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FTA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한국의 필리핀 수출은 5.7% 증가한 85억3,8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필리핀 통계청(PSA)은 밝혔습니다.

만자노 부교수는 “또 다른 이유는 높은 관세 품목의 필리핀 수출품이 원산지 규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즉 필리핀의 부가가치가 낮을 수 있다는 점” 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많은 수출업체가 여전히 FTA 활용 방법을 배우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한국 FTA는 지난해 말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MSME와 같은 필리핀 수출업체들이 FTA를 활용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활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겅티 차관보는 여전히 많은 미개척 기회가 남아 있으며, RCEP 자유무역지대만 해도 세계 교역의 29%, 전체 GDP의 29%, 23억 명 인구 시장을 차지하는 최대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이 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시장 접근을 넘어, 무역과 투자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칙이 적용되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는 정보 제공 측면은 무역 교육 및 홍보(Trade Education and Advocacy, TEA) 캠페인과 ‘Usapang Exports’ 를 통해 다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필리핀상공회의소(PCCI), PhilExport, 여성기업위원회(Women Business Council)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FTA에 대한 인식과 활용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필리핀-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와 관련해, 이 협정은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수산물과 주요 농산물과 같은 무관세 수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겅티 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문직, 건설, 비즈니스 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좋은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해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식하고 동시에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필리핀이 이제 국제 경제 사회에서 더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Cont. page 7]

FTA 활용의 열쇠: 필리핀 경쟁력의 부족

[Cont. from page 6]

필리핀의 교역 상대국들은 필리핀을 “규칙 기반 무역 체제를 형성할 능력과 의지를 갖추고 있으며, 무역 네트워크를 확대할 준비가 된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EU, 칠레, 향후 캐나다, 인도, 이스라엘과 협상 중인 FTA는 필리핀이 우대 시장 접근권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표라고 평가됩니다.

필리핀 외국 바이어 협회(FOBAP) 회장 로버트 M. 영(Robert M. Young)은 필리핀이 지역 경쟁국을 따라잡기 위해 더 많은 FTA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수출업체들이 FTA 파트너국 수출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Philexport(필리핀 수출업체 연합)의 섬유·실·원단 부문 신탁위원이기도 한 영 회장은 “필리핀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BusinessWorld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FTA는 본질적으로 수출에서 발생하는 관세 수익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과 교역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망고를 수출하지만, 필리핀 망고 가격이 너무 높아 다른 수출업체보다 비쌉니다. 한국이 이를 살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는 “한국에는 필리핀 망고를 거부할 충분한 이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FTA와 관련해서는 필리핀이 가격 경쟁에 대비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업체를 준비시키지 않으면, 이러한 협정이 오히려 필리핀 산업을 위협할 수 있으며, 수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가격, 품질, 배송 면에서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수 수입만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무역 적자가 발생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FTA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값싼 수입품이 쏟아지면,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수입품이 스타트업과 개발 중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무부(DTI) 수출마케팅국(Export Marketing Bureau)에 따르면, 필리핀은 다양한 지역 협정 내에서도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10개월 동안 필리핀은 RCEP 회원국에 317억6,800만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출한 반면, 821억1,200만 달러를 수입했습니다.

ASEAN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SEAN-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지대, ASEAN-중국 자유무역지대, ASEAN-인도 자유무역지대, ASEAN-일본 중합경제동반자협정, ASEAN-한국 자유무역지대 등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영 회장은 “많은 의류 수출업체가 FTA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국가들도 의류 생산국이기 때문이며, 파트너국들은 다른 나라의 의류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필리핀 의류를 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재 필리핀의 의류 가격은 ASEAN에서 가장 높습니다. 바지 최저가는 \$7인데, 베트남은 \$5, 말레이시아는 \$6, 라오스는 \$6.50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높은 인건비와 전력 비용, 그리고 섬유 산업 부채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FOBAP에서는 우리가 가격대가 높은 제품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의 바람은 필리핀에도 섬유 산업이 생기고, 정부가 깨어나서 이 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6/01/14/724159/missing-piece-in-unlocking-ftas-phl-competitiveness/>

사업 중단, 아시아·태평양 기업들의 주요 위험 요소

January 15, 2026 | Niña Myka Pauline Arceo | The Manila Times

The Manila Times® 알리안츠 위험 바로미터 2026(Allianz Risk Barometer 2026) 조사에 따르면, 지정학적 긴장, 보호무역 정책,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이 아시아·태평양(APAC)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29%가 사업 중단을 최우선 위험으로 꼽았습니다.

조사에서는 “관련 위험의 심각성과 빈도가 증가하면서 기업에 지속적인 운영 및 재무적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공급망 붕괴, 에너지 부족,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위험으로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사업 중단은 중국,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등 주요 경제권에서도 상위 세 가지 위험에 포함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사업 중단과 밀접하게 관련된 위험으로는 무역 관세를 포함한 법률·규제 변경 위험이 있으며, 이 위험은 전 세계적으로 25%로 네 번째로 높게 평가되어 전년도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사에서는 “무역 활동이 점점 지정학적으로 정렬된 경제권 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로 인해 공급망 경로 변화와 아시아 내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차세대 무역 허브의 부상을 조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2025년이 보호무역 정책 강화와 관세 전쟁으로의 뚜렷한 전환을 나타내며,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에서는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해 공급망이 점점 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응답자의 단 3.0%만이 자사의 공급망을 ‘매우 회복력 있다’고 평가하여,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역 규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알리안츠 트레이드(Allianz Trade)는 지난 1년간 규제 건수가 세 배로 증가했으며, 약 2.7조 달러 규모의 상품, 즉 전 세계 수입의 거의 20%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했습니다.

기업들은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친선국 중심 공급망(friendshoring)이나 지역화(regionalization)와 같은 공급망 전략을 제검토하고 있습니다.

친선국 중심 공급망(friendshoring, allyshoring)은 정치적·경제적으로 우호적인 국가에서 원자재를 조달하고 상품을 생산하는 공급망 전략을 의미합니다.

자연재해

자연재해 역시 이 지역의 주요 우려 요인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22%로 다섯 번째 위험으로 꼽혔으며,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에서는 상위 세 가지 위험 중 하나로 평가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25년에 미얀마 지진, 태풍 매트모(Matmo), 라가사(Ragasa), 부알로이(Bualoi), 사이클론 알프레드(Cyclone Alfred), 한국의 산불,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대규모 홍수 등 일련의 심각한 자연재해를 경험했습니다.

열대성 태풍 시즌의 늦은 시작은 심각한 홍수와 산사태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명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조사에서는 밝혔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지역의 큰 보험 격차(insurance gap) 때문에 더욱 심각해졌으며, 여전히 80% 이상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많은 손실이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경제적 손실과 보험 손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 10년 평균보다는 낮으며, 자연재해의 변화하는 특성은 기업과 (재)보험 산업에 여전히 큰 도전 과제를 제기한다”고 전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2025년 보험 적용 손실은 약 1,070억 달러로 추정되며, 경제적 손실은 2,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6/01/15/business/top-business/business-interruption-a-top-risk-among-apac-firms/2258931>

상무부, 의류 제조업체 대상 세제 혜택 시행

January 15, 2026 | By: Logan Kal-El M. Zapanta - @inquirerdotne | Philippine Daily Inquirer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 상무부(DTI)는 “글로벌 경쟁 심화”를 이유로 필리핀 의류 제조업체들의 운영비용을 낮추기 위한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기업 회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법안(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 to Maximize Opportunities for Reinvigorating the Economy, CREATE MORE Act)에 의해 규정되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나 기존 의류 기업의 자회사는 이제 전력 관련 비용에 대해 100% 추가 공제, 직접 인건비에 대해 5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생산량의 최소 70%를 수출하는 의류 제조업체는 부가가치세(VAT) 0% 적용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무부(DTI)는 이러한 조치가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보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DTI는 현재 12%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VAT(인도네시아와 동일)를 인하하는 방안을 업계와 함께 검토 중입니다.

산업 현대화

크리스티나 로케(Cristina Roque) 무역장관은 이번 인센티브가 의류 제조업체, 수출업체, 국제 바이어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직접 받은 피드백에 따르면, 자동화는 선택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필수 요건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DTI는 필리핀 토지은행(Land Bank of the Philippines)과 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 등 정부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기계, 생산 장비, 자동화 설비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교육 및 역량 강화

또한 DTI는 기술교육 및 역량개발청(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자동화 의류 생산에 필요한 숙련된 재봉사와 기계 기술자 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DTI는 의류 제조업체들이 **해외무역서비스단(Foreign Trade Service Corps)**과 협력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 기관은 필리핀 수출업체와 국제 바이어 및 무역회사를 연결해 줍니다.

필리핀 섬유연구소(Philippine Textile Research Institute)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에는 999개 의류 제조 시설에서 약 7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메트로 마닐라, 센트럴 루손, 칼라바르손(Cavite, Laguna, Batangas, Rizal, Quezon)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의류 주요 수출 시장으로는 미국, 일본, 한국, 영국, 아일랜드, 중국 등이 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68828/dti-launches-tax-perks-for-garment-makers](https://business.inquirer.net/568828/dti-launches-tax-perks-for-garment-makers)



A clothes factory in Lapu-Lapu City. —PHOTO COURTESY OF THE MEPZ WORKERS ALLI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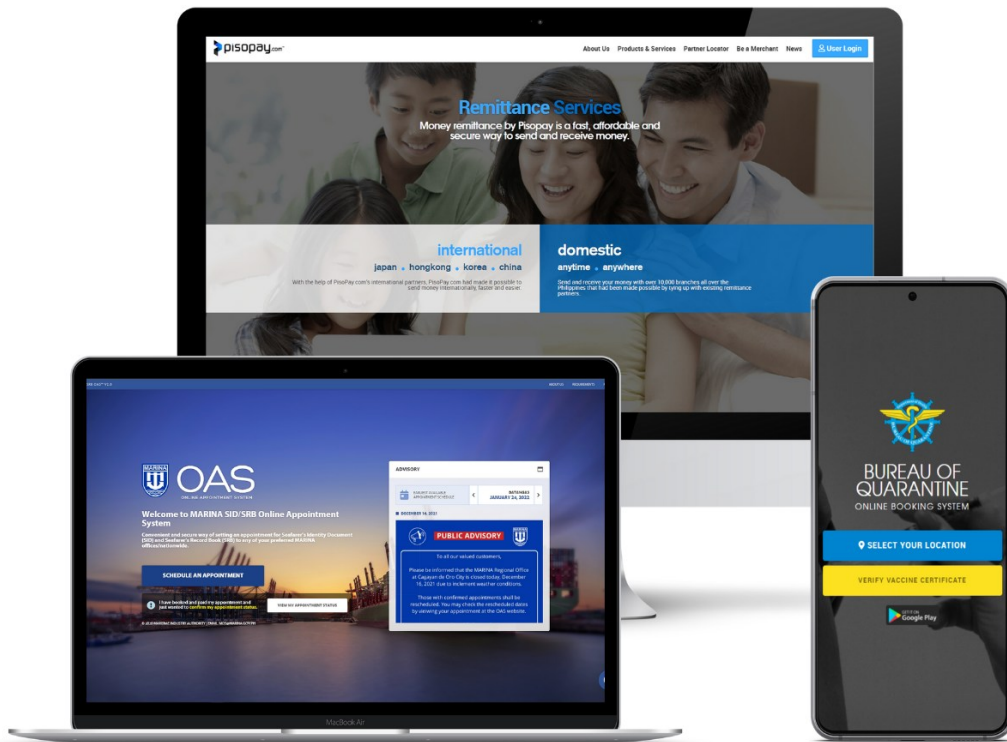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Elevating the definition of Fintech Standards



CONTACT US

- (02) 8242 8153
- info@pisopay.com.ph
- <https://www.pisopay.com.ph>
- Pisopay Bldg, 47D Polaris, Makati, 1209 Metro Manila

